

삭개오를 구원하신 예수님

말씀 / 누가복음 19:1-10

요절 / 누가복음 19:10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

사건 :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그를 구원하셨다.

†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서 잃어버린 자인가?

1.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까(1)?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시내를 지나고 계셨다. 예수님은 인류구원역사를 이루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시게 되었다.

☞ 여리고

위치 : 예루살렘으로부터 동북동쪽으로 22.5km 떨어져 있다.

지형 : 바다수면보다 25m 낮은 지점에 있다. 해변보다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겨울에 따뜻하여서 부자들의 겨울별장들이 많이 있었다. 여리고는 종려나무, 바나나, 오렌지, 향료 등의 열대성 식물이 많은 아름다운 도시로 ‘향기의 도시’, ‘종려나무의 성’이라 불리울 만큼 향료가 많이 나고, 종려나무가 많다.

지리 : 또한 아랍지역과 이스라엘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지이며 예루살렘 다음가는 대도시였다. 상업이 발달한 도시로서 이곳에 큰 세관이 있었다. 이 세관은 유대지방과 요단 강 건너 베레아 지방 간의 교역을 감시하는 곳이었다.

2. 삭개오는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었으며, 그의 경제적인 형편은 어떠했습니까(2)? 그가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 삭개오는 사회적 지위는 세리장이요 경제적 형편은 부자로 부유한 생활을 하였다.

삭개오는 세리들보다 더욱더 지독하게 끈질기게 악착같이 세금을 긁어모아 세리장이 되었다. 세리장이 되기까지 긁어모은 돈으로 큰 정원과 수영장과 테니스장이 있는 집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세리에 대하여 알아보자

세리는 당시 로마당국이 고용한 세금징수원으로서 백성으로부터 수입의 35~40%를 세금으로 징수하여 할당된 세금을 로마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in my pocket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웠

. 로마는 원활한 세금징수를 위해 세리들의 이러한 행위를 묵인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세리들을 ‘민족의 반역자’, ‘로마의 사냥개’라고 저주하며 욕하였다. 그리고 창기와 함께 당시 공인된 죄인으로 취급하였다. 이런 세리들은 성전에서 예배조차 드릴 수 없었으며, 친족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 없었다.

☞ 삭개오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순탄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삭개오가 왜 세리가 되고자 하였을까?

삭개오란 이름의 뜻은 ‘순결’, ‘정의’로 그의 부모님은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키가 작고, 그의 가정은 찢어지게 가난하여 심한 고생을 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러한 인간조건을 개선하고자 인생의 목표를 돈 버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면 키작은 그의 외모 콤플렉스도 커버하고,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했다.

당시 로마식민지 지배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돈없고 백없는 사람이 출세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리가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세리가 되고자 지독하게, 끈질기게, 악착같이 공부하였다. 결국 그는 세리가 되었고, 더욱더 노력하여 세리장이 되었다. 목표로 하던 부자가 되어 부유한 생활을 누렸다. 이런 그는 마땅히 행복해질 것 같았다. 그러나 삭개오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삭개오는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

행복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였느냐?’에 있지 않고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삭개오는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돈만 많이 있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되어 악착같이 끈질기게 그리고 지독하게 돈을 긁어모았습니다. 물질에 눈이 멀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동족들을 배반하여 세리가 되었습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인간!”하는 사람들의 저주와 욕설과 악몽에 시달렸다. 삭개오는 사람들로 부터 철저히 소외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때 또한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삭개오가 이기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 여기서 이기심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기심이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에만 관심을 갖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항상 자기 것만 꾸리고자, 자신을 위해 제일 좋은 것을 챙기고자 하는 마음이다.

† 그러면 이기적인 삶이 왜 최악인가?

첫째,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눈에 아주 잘 보이는 돈이나, 명예, 권력을 추구한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때 오히려 죄의식과 두려움, 고독감으로 고통해야 한다. 죄로 인해 고통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결코 행복해 질 수 없다. 이는 인간은 육신과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은 물질로는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빈 공간이 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할 때만이 채울 수 있다.

,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이기적인 사람은 남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게 된다. 결국 자신도 이러한 이기적인 삶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다.

약1:15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화) 미국 작가 드라이저의 “아메리카의 비극”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시카고에 있는 한 셔츠공장에서 일하면서 공장의 한 여직공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 이 무렵 그는 과장으로 승진하며, 상류사회에 진출하여 갑부의 딸과 새롭게 교제하였다. 그녀와 결혼하여 출세가도를 달리고자 하였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여직공이 그의 아이를 임신하였고 그에게 결혼을 요구하였다. 그는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놓치기 싫어 여직공과 함께 뱃놀이를 하다가 사고인 것처럼 꾸며 그녀를 익사시켰다. 그러나 결국 그는 체포되어 법정에서 살인죄로 사형선고를 받아 22년의 짧은 인생을 전기의자에서 마감하고 말았다.

3. 그가 누구를 보고자 했습니까(3a)? 특히 어떤 점에 관심을 가졌습니까? 그가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자 했을까요?

☞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하며 그분을 뵙고자 하였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한 가닥 소망의 빛을 붙잡으려는 간절한 영적소원이라고 할 수 있다.

☞ 아마도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과 소식들을 들었을 것이다. 죄인과 세리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신다는 소식, 어떠한 죄인이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다 용서하시고 영접해 주신다는 소문 등. 무엇보다 놀라운 소식은 예수님이 자기와 같은 죄인인 세리 레위를 찾아 오사 제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었다. 자신과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영접해주신다는 점에 크게 관심갖고 D있었다.

☞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고 싶었다. 이는 그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다.

4. 그가 예수님을 보고자 할 때 부딪힌 장벽이 무엇입니까(3b)? 그러나 그는 이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4)? 이 가운데 나타난 그의 인간성과 영적 소원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으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볼 수 없었다.

첫째, 내적장애물, 키가 작은 문제. 이는 자신의 가정환경과 신체조건에 대한 운명주의로 스스로 절망케하여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한다.

둘째, 외적장애물, 사람이 많은 문제. 삭개오는 세리장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부터 따돌림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갈 수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어 헤집고 들어가야하는데 쉽지않은 일이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이러한 장벽에 부딪힐 수 있다. 첫째, 가정환경과 신체조건에 대한 운명적인 생각, 둘째, 사람들의 반대로 인해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현재 나의 모습을 한 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삭개오는 이러한 장벽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였다.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 뽕나무는 바로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되는 길에 위치한 나무였다.

뽕나무, 돌무화과나무(sycamore tree) : 무화과나무, 플라타너스, 큰 단풍나무

첫째, 영적소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영적소원으로 자존심, 사회적지위, 체면 등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뽕나무로 올라갈 수 있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고자 하는 영적 소원이 있는 사람은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둘째, 끝까지 포기치 않는 불굴의 투지. 삭개오는 악착같이, 끈질기게, 지독하게 인생을 살아 온 사람이다. 그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보고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방법을 찾고 찾았다. 그래서 드디어 뽕나무를 발견하고 그 나무위로 킁킁대며 올라간 것이다.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끈질김과 악착으로 그는 기어코 해내고 만 것이다. 그의 지의 사나이 삭개오였다.

렘29:13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5. 예수님은 어디서 멈추셨으며, 누구를 주목하셨습니까(5a)?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중에서 왜 삭개오를 주목하셨을까요?

☞ 예수님은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 아래에 이르사 멈추시고 그 뽕나무를 우러러 보시고 영거주춤하고 매달려 있는 삭개오를 주목하셨다.

☞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과 그가 나무 위에 있다는 것을 아신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예지 곧 신성을 나타내준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중에서 영적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삭개오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이 예수님은 양의 이름을 아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셨다. 삭개오가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하고 있는 것을 아셨다. 이기심과 이기적인 삶으로 고독과 절망 속에서 슬피울고 있는 영혼을 보셨다. 그리고 절망의 벼랑끝에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온 병든 죄인을 보셨다.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관심과 이해와 사랑으로 죄인을 부르신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는 잃은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다.

6.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무슨 은혜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까(5b)? 예수님께서 왜 그의 집에 유하고자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유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그에게 큰 은혜가 됩니까? 여기서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그의 집에 유하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고독하고 대화를 나눌 친구조차 없는 그를 잘 아시고 그의 집에 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 예수님은 삭개오가 간절한 영적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것을 아신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고자 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계3:20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이요 인간쓰레기로 구제받을 수 없는 낙인찍힌 삭개오와 함께 한다는 것, 그의 집에 머물고자 하신다는 것은 정말 은혜중의 은혜이다.

여기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심을 취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겸손하게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또한 사람들을 겸손히 낮추어 섬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희생하셨다(빌2:6,7).

☞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그의 집에 유하신 예수님은 이기심의 죄로 인해 고통하고 있는 한 영혼을 아시고 찾아오신 사랑의 예수님이시다. 이기적인 삶으로 인해 친구도 없이 외로이 살 수밖에 없는 삭개오를 그의 집에 유하심으로 그의 친구가 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예수님이시다.

7. 이 말씀을 들은 삭개오의 기쁨이 어느 정도였습니까(6)? 그가 왜 이토록 기뻐했을까요?

☞ 이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난생 처음으로 큰 잔치를 베풀었다. 세리와 죄인들을 모두다 초청해서 마음껏 먹고 마셨다.

☞ 삭개오는 자기를 잘 아시고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받았다.

8.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이려 수군거렸습니까(7)? 그들은 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까?

☞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고 수군거렸다.

☞ 그들에게는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은 잃어버린 자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어 공인된 죄인인 세리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뛰어넘어 죄인들과 함께하심으로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이다. 우리가 율법적인 생각에 갇혀있으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

9.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의 결단이 무엇입니까(8)? 이를 볼때 그의 내면에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체험했을까요?

☞ 삭개오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 배나 갚겠나이다.”라고 결단하였다.

여기서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것은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의 삶의 전환을 의미한다. 또한 자신이 세리생활을 하면서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사 배나 갚겠다고 한 것은 과거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것이다.

토색 : 강탈, cheat(속여서 빼앗다), false accusation(무고), defraud(횡령하다)

보상법에 관하여

율법에 부당하게 갈취한 돈을 되돌려 줄 때는 대개 그 액수에 1/5을 보태어 되돌려 주었다(레6:1-5). 그러나 가축도둑에게는 4배의 변상을 요구하였다(삼하12:6; 출22:1). 로마와 이집트의 법에도 4배로 변상하는 비슷한 법이 있었다.

6:5 무릇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에 오분 일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삼하12:6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사 배나 값아 주어야 하리라

출22:1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 삭개오는 내면에 변화의 역사를 이루었다.

첫째, 가치관의 변화되었다.

삭개오는 돈을 위해 악착같이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 돈은 별로 중요치 않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의미요, 목적이요, 행복이 되었다. 물질에 대한 욕심과 집착에서 해방되어 올바른 물질관을 갖게 되었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삭개오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다. 자기 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였다. 이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자 그에게 먼저 물질을 다스릴 힘이 생기게 되었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자기로 인해 고통당한 사람들을 생각했다. 이제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 사랑에 깊이 감동되어 마음으로부터 회개하였다. 그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여 그의 가치관이 달라졌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 아마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한 것은 남에게 베푸는 사랑, 죄인과 함께하는 은혜일 것이다.

빌3:7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3: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
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서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10.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9a)?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를 어떤 자로 인정하셨습니까(9b)?(참조 롬4:11,12,16)

☞ 예수님은 내면으로부터 변화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를 이룬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였습니다.

☞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다.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여기서 오늘은 구원의 현재성을 말하는 것이다. 삭개오가 회개한 순간부터 정죄와 심판이 사라지고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이다. 또한 삭개오 뿐만 아니라 그의 식구 모두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이다. 삭개오는 이제 집안의 복의 근원, 복덩이가 되었다.

☞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셨다. 그를 믿음의 자녀로 인정하셨다.

4:16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1.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10)? ‘잃은 자’란 어떤 자를 말합니까? 잃은 자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셔서 이땅에 오셨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잃어버린 자이며,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 잃어버린 자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떠난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었습니다. 자아를 잃었습니다. 사명을 잃었습니다. 삭개오는 이런 잃은 자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는 안정된 직업과 사회적인 지위와 부를 소유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잃은 자였습니다.

☞ 잃어버린 자란 본래 하나님의 자녀이었는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인간을 말한다. 이를 하나님 편에 본다면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를 원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아버지요 목자가 되셔서 잃어버린 아들을, 잃어버린 양떼를 찾도록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눅15장).

예수님은 인류 구속역사의 완성을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도 잃어버린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리고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나라의 영광과 특권을 버리시고 이 땅에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친히 지불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요15: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잃어버린 자였던 사람들 : 노예선장 잔 뉴턴

노예선장이었던 잔 뉴턴은 본래 잃어버린 자였으나 주님께서 찾아주심으로 구원을 받고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와 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see." 그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갚고자 자기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데 일생을 바쳐 헌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중심적으로 살 때 잃어버린 자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잃어버린 인생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땅에 낮아져 오셨다.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영접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자.

-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 3절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 4절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 7절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 10절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공동번역

- 1절 예수께서 예리고에 이르러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 2절 거기에 자캐오라는 돈 많은 세관장이 있었는데
- 3절 예수가 어떤 분인지 보려고 애썼으나 키가 작아서 군중에 가리워 볼 수가 없었다.
- 4절 그래서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길을 앞질러 달려 가서 길가에 있는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다.
- 5절 예수께서 그 곳을 지나시다가 그를 쳐다보시며 "자캐오야, 어서 내려 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 6절 자캐오는 이 말씀을 듣고 얼른 나무에서 내려 와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셨다.
- 7절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 가 묵는구나!" 하며 못마땅해 하였다.
- 8절 그러나 자캐오는 일어서서 "주님, 저는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속여 먹은 것이 있다면 그 네 갑절은 갚아 주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 9절 예수께서 자캐오를 보시며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 10절 사람의 아들은 잃은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온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표준새번역

- 1절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서, 그 곳을 지나가고 계셨다.
- 2절 그런데 마침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 3절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 4절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로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

것이기 때문이었다.

5절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6절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 들였다.

7절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기를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하였다.

8절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탈을 했으면 네 배로 갚아 주겠습니다."

9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10절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NIV

1절 Jesus entered Jericho and was passing through.

2절 A man was there by the name of Zacchaeus; he was a chief tax collector and was wealthy.

3절 He wanted to see who Jesus was, but being a short man he could not, because of the crowd.

4절 So he ran ahead and climbed a sycamore-fig tree to see him, since Jesus was coming that way.

5절 When Jesus reached the spot, he looked up and said to him, "Zacchaeus, come down immediately.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6절 So he came down at once and welcomed him gladly.

7절 All the people saw this and began to mutter, "He has gone to be the guest of a 'sinner.'"

8절 But Zacchaeus stood up and said to the Lord, "Look, Lord! Here and now I give half of my possessions to the poor, and if I have cheated anybody out of anything, I will pay back four times the amount."

9절 Jesus said to him,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because this man, too, is a son of Abraham."

10절 For the Son of Man came to seek and to save what was lost."

NKJ

1절 Then [Jesus] entered and passed through Jericho.

2절 Now behold, [there was] a man named Zacchaeus who was a chief tax collector, and he was rich.

3절 And he sought to see who Jesus was, but could not because of the crowd, for he was of short stature.

4절 So he ran ahead and climbed up into a sycamore tree to see Him, for He was

going to pass that [way.]

5 And when Jesus came to the place, He looked up and saw him, and said to him, "Zacchaeus, make haste and come down, for today I must stay at your house."

6절 So he made haste and came down, and received Him joyfully.

7절 But when they saw [it,] they all complained, saying, "He has gone to be a guest with a man who is a sinner."

8절 Then Zacchaeus stood and said to the Lord, "Look, Lord, I give half of my goods to the poor; and if I have taken anything from anyone by false accusation, I restore fourfold."

9절 And Jesus said to him,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because he also is a son of Abraham;

10절 "for the Son of Man has come to seek and to save that which was lost."

NRS

1절 He entered Jericho and was passing through it.

2절 A man was there named Zacchaeus; he was a chief tax collector and was rich.

3절 He was trying to see who Jesus was, but on account of the crowd he could not, because he was short in stature.

4절 So he ran ahead and climbed a sycamore tree to see him, because he was going to pass that way.

5절 When Jesus came to the place, he looked up and said to him, "Zacchaeus, hurry and come down; for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6절 So he hurried down and was happy to welcome him.

7절 All who saw it began to grumble and said, "He has gone to be the guest of one who is a sinner."

8절 Zacchaeus stood there and said to the Lord, "Look, half of my possessions, Lord, I will give to the poor; and if I have defrauded anyone of anything, I will pay back four times as much."

9절 Then Jesus said to him,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because he too is a son of Abraham.

10절 For the Son of Man came to seek out and to save the lost."